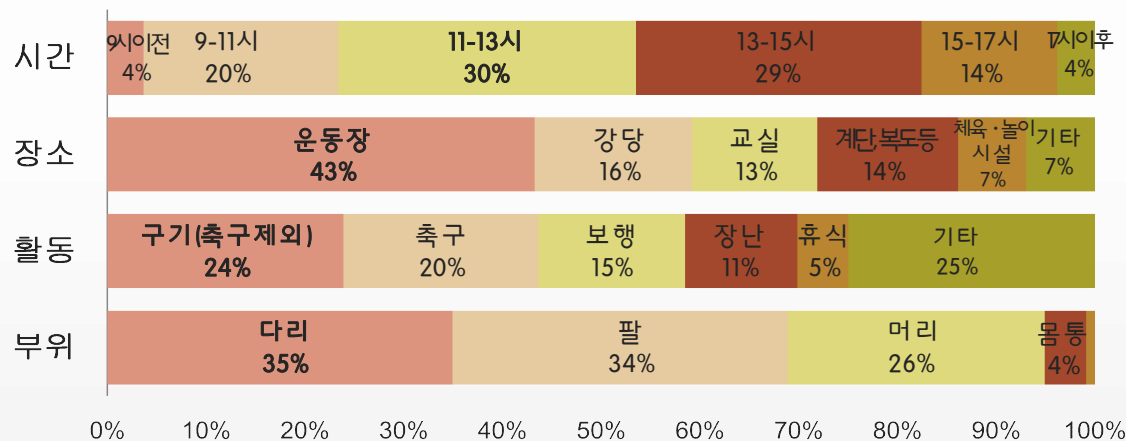


새 학 기 안전 을 위한 우리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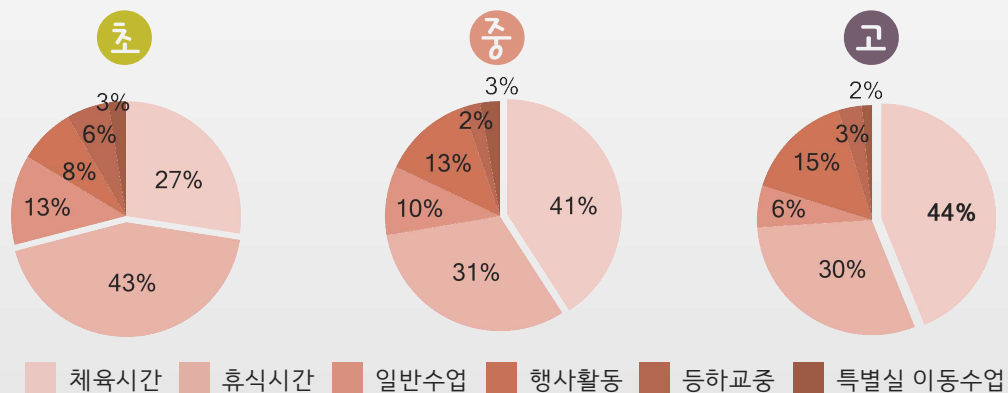
'14~'16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총 건수	8월	9월	9월 중 학교안전사고 현황					
			체육 시간	휴식 시간	일반 수업	행사 활동	등하 교	특별실 이동수업
100,512	4,193 (4%)	10,753 (11%)	3,836 (36%)	3,660 (34%)	1,427 (12%)	1,260 (12%)	445 (4%)	249 (2%)

9월



급별



9월은 개학으로 학교안전사고가 급증
(8월 4,193건, 9월 10,753건으로 8월 대비 156% 급증)

체육시간(36%), 휴식시간(34%) 순으로 사고 발생이 많으나,
초등학교는 휴식시간(43%), 중·고등학교는 체육시간(각 41%, 44%)에 많이 발생

11-15시 사이에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59%)하고,
주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제외한 구기운동 시 다리부위를 많이 다칩

체육활동 안전수칙

- ❖ 운동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업중에는 개별활동이나 장난을 하지 않아요.
-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하고, 승부보다는 최선을 다해요.
- ❖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선생님에게 알려요.
- ❖ 골대에 매달리지 않고,
운동기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난치거나 함부로 뛰어내리지 않아요.
- ❖ 시설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요.
- ❖ 운동기구 또는 시설물을 허락없이 이동시키지 않아요.



교실에서의 안전수칙

- ❖ 술래잡기나 공놀이 등은 운동장에서 해요.
- ❖ 지나가는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아요.
- ❖ 책상이나 의자 위로 걸어다니면 위험해요.
- ❖ 몰래 의자를 빼는 장난은 아주 위험해요.
- ❖ 출입문으로 장난하거나 뛰면서 드나들지 않아요.
- ❖ 창문을 통하여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고, 창턱에 걸터앉거나 몸을 내밀지 않아요.
- ❖ 창문이나 창틀에 충격을 주지 않아요.
- ❖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친구가 맞을 수 있어요.



복도·계단 통행 안전수칙

- ❖ 복도와 계단은 통행로! 장난과 놀이를 하지 않아요.
- ❖ 뛰지 않고 오른쪽으로 걸어요.
- ❖ 교실에서 나오는 친구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요.
- ❖ 계단은 한 칸씩 오르내리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미끄럼을 타지 않아요.
- ❖ 사물함이나 청소용구함에 올라가지 않아요.
- ❖ 물기가 있는 곳은 특별히 조심해요.
- ❖ 이어폰을 꽂거나 책을 보면서 걸지 않아요.
- ❖ 여러 명이 어깨동무하거나 손을 잡고 걸지 않아요.





안 전 더 하 기

'14~'16학년도 유행성 각결막염 감염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발생건수	116	166	211	294	186	422	621	316	233	162	3	21	2,751

*자료출처:NEIS

특징

그냥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일년 내내 발생할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눈병에 걸린 사람의 눈물, 눈곱 등과 같은 분비물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가
출입문, 버스나 지하철 등의 손잡이, 수영장 등 공공장소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증상

눈꺼풀이 붓고, 눈이 빨강게 충혈되며 아픕니다.
눈물과 눈곱도 많아지며, 자고 일어나면 눈곱으로 인해 눈이 달라붙어 떼지지 않습니다.
귀 앞쪽의 임파선이 부어 만지면 느낄 수도 있고, 세수할 때 손에 닿으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열이 나고 두통과 오한, 목이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까만 동자의 껍질이 벗겨져 눈이 부서 빛을 바라보기가 힘들고
눈을 깜박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안약을 넣기 위해 눈을 만지거나 눈물 및 눈곱을 닦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세면대, 수건, 베개 등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로 외출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예방법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않도록 합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신의 눈을 만지는 행동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서울대학병원 공식블로그

'14~'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발생건수		2	16	25	29	20	15	5	29	20	15	7	183

*자료출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5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발생
- ◆ 건너는 기구 > 조합놀이대 > 그네, 오르는 기구 순

추 석 벌 초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긴팔, 긴바지 입기

짧은 옷을 입을 경우 가시나 풀 등에 피부가 쓸리거나 해충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 사용 자제하기

벌초 중 가장 빈번한 사고가 바로 벌에 쏘이는 사고!!

벌이 화장품 등의 향기에 끌려 올 수 있으므로 향이 나는 제품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화 등 단단한 신발 착용하기

벌초 시 뱀과 마주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뱀의 공격에 대비해 등산화, 장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풀숲 사이를 걷지 않고 되도록 통행이 가능한 등산로 등을 이용합니다.



벌쏘임 사고의 절반(56%)이 8월~9월 발생

말벌 쏘임 예방법

- ◆ 산행 등의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 ◆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지 말고
벌집에서 직선거리로 20m이상 떨어진 곳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좋다.
- ◆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인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 후 빨리 병원으로 이동한다.
- ◆ 이 때,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위험하다.



말벌 공격성향 실험 결과

색상에 따른 공격성: 검은색 > 갈색 > 초록색 > 노란색 순서

공격부위: 머리부위 집중공격

특이사항: 벌집을 건드린 후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정도를 뛰어가면 대부분의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

* 실험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간: '16.6월~9월, 장소:가야산 등 국립공원

*자료출처:경기도청, 행정안전부